

작성자 : 잠시 궁금

수정: 2, 조회: 90, 줄수: 48, 분류:

Re: 상관없는 판지..

99 wrote:

마광수 교수님과 허영 교수님...그리고 객순근 강사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각각..

허영 교수님은 교수 정년 임기를 마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신거고...

다만 우리 학교에서 '명예교수'요건 성립이 안돼(20년 근속)

(다만, 좀...말할 수 없는 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루 알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 초빙교수 비스무리하게 하신 걸로 알고있고...

마광수 교수님은 어디까지나 '정교수'신분이시구요...

기간임용관련해서...재임용 탈락하신 케이스고...

객순근 강사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아직 '강사'신분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정교수 임용 여부'와 관련된거고...

기간임용 탈락과는 관계가 없죠...

예초에 누굴 정교수로 임용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학교가 정할 사항이죠...

이미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정교수였던

마광수 교수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 허접한 글이니 대충 읽어주시길. 그렇지만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나름의 의견을 밝혀주시길.

>

> 객 강사의 학문적 입장은 제가 자세히 몰라 알가알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분법 사고에 갇힌 자와 그것을 넘어선 자신 사이에 '우열'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습니다. 론 그의 말대로 어느 것이 더 여성문제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고 더 올바른 것인지는 아직 판단 서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글을 보기전에는 그의 '여성노예' 대한 생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

> 그는 분명히 '돈이 없으면 여성은 몸을 팔고 남자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책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남녀 평등적인 생각인거 같습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누구라도 몸을 판다... 그렇지만 '여성의 성매매=몸 팔기'라는 도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녀평등적인가 하는 점은 의-

Re:그냥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될까?

꼭교수말대로 그냥 강의실에서 하는 소리다..

못할 말이 어딴나??

그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오려다가 무슨 여성차별이니 --;

여성들이여 제발 넓게 생각하라~

왜 여성차별로 받아들이는건지

이런거 가지고 따지고 넘어가면 오히려 여성운동이 비웃음꺼리밖에 안된다는 걸 모르나..

이전: 그냥 제 생각은

다음: Re: Re:그냥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될말이
조....-_-;

2003/05/26(15:51) 1

165,132.52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 : 97

추천: 2, 조회: 118, 줄수: 20, 분류:

Re: Re:그냥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될말이죠....-_-;

당연히 할 말의 안할 말의 엄연한 구분이 있는거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음란물이 형사처벌 안 받습니까?
 이런 경우는 음란물이나 똑같은게...
 진짜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서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하고 그럴 일을
 양지로 끌어내서 화를 자초한 거랑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아무데나 갈다 붙이면 안되겠지요?

아 참...그리고 기분 나쁜게...
 콧...그 아저씨...말은 안되지만 자기 할 소리 하는 것은 좋은데...

"뭐 다음에 날 부르지 않으면 연대법대 지적수준을 알 만하다" 라고?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봐요 콧아저씨...
 유치한 면이 없어야 당신 글을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없는 인간들 하는 식으로 남을 살살 굶으면서
 내가 절대 선이니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니 지적수준이 어찌고 하는
 초등학생 놀이를 하니까 반말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전: Re:그냥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될까나?

2003/05/26(15:59) from 165.132.5:

다음: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CrazyWWWBoard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대학이란 곳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는것도 좋을듯

다소 개성이 강하고 표현이 거칠어도 학생수준에서 왈가왈부하는건 도리가 아닌 듯 합니다

더욱이 음란물이라니요--;

헌법공부 다시하세요..

음란과 저속의 기준이 얼마나 애매모호한데 님이 함부로 음란하다고 규정합니까??

이전: Re: Re:그냥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될말이
 죠....-_-;
 다음: Re: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2003/05/26(16:09) |
 165.132.52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 : 00

수정: 2, 조회: 49, 줄수: 12, 분류:

Re: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問1.대학이란 곳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는것도 좋을듯
-> 그런데 왜 97님이 쓰신 글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問2.다소 개성이 강하고 표현이 거칠어도 학생수준에서 왈가왈부하는건 도리가 아닌 듯 합니다
-> 97님이 쓴 글의 개성이 강하고 표현이 거칠어도 99년 후배일텐데 왈가왈부하는것도 도리
아니지않습니까?

問3.> 더욱이 음란물이라니요--;

> 헌법공부 다시하세요..

-> 99님보다 2년 선배인 분에게 헌법공부 다시하라니요? 설령 님의 헌법실력이 선배들보다 C
무리 뛰어나도, 설령 님이 2차 합격생이라도 그런말을 공개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
고 생각되는데요.

問4.> 음란과 저속의 기준이 얼마나 애매모호한데 님이 함부로 음란하다고 규정 합니까??

-> 그렇게 애매모호하니까 음란하다고 규정지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re: 김니다..

2003/05/26(19:08) from 165.132.5: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 : 01

추천: 2, 수정: 2, 조회: 165, 줄수: 68, 분류:

re: 김니다..

(저는 객순근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적으니 객 교수님의 해명성 글에 대한 감만 적겠습니다.)

(적고보니 기네요. 원래 긴 글 읽기도 쓰기도 싫어하는데 우쨌 이런 일이다..T)

한마디로, 논리적이지 못한 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교수님께서 남녀평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적어도 무관심하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수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편견 없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관심분야에서 연구 잘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1. 먼저 교수님께서 '강사노예'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여성노예'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째서 성차별 발언 보도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성 글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녀평등을 바라게 된 배경에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에 언급하신 것인지도 모르지만, 0 개인적인 언급일 뿐이며, '나 자신이 강사노예이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할 리가 없다'는 논조는 논적인 타당성이 없습니다.

2. 둘째 '남자는 막노동을 해서 책을 사고 여자는 몸 팔아서 책을 사'는 발언의 앞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책을 사기 위해 극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취후의 수단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요즘, 남자도 몸 팔면, 팔립니다. 여자도 '여성용 막노동' 있습니다. 파출부, 식당일, 이런 것 말입니다.

헌법교수님께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신 점, 의미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실을 생각해서 이러한 발언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명에서 앞부분을 빼는 것은.. 글썄요.. 개인적으로는 '찢리는 게 있어서' 그부분을 생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담배심부름에 대한 반발을 예로 들어 여성들이 더 남녀평등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의 예를 과장하셨다고 여겨지지만,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은 상호 심부름할 수 있는 평등한 성인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타당한 예가 있었다고 치고~)

틈아저씨가 노예로서 행복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노예제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지금의 지위에 만족하고, 평등을 바라지 않는다고 남녀불평등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나는 남녀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다. 떳떳하다'고 말씀하고 있다가 보다는,

오히려 이 예를 통해 '나는 남녀평등의 장애물이 아니다. 여성 스스로가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나 떳떳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의 '그러므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아편먹은듯이 행복해해도 노예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제도이므로 어저야 합니다.

그런데 노예제도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노예들이 노예인 걸 좋아해'라고 굳이 하나의 문단을 짚어하여 예를 듭니까?

의문입니다..의문이예요..

4....이상이 저의 감상인데, 교수님 지지자도 많은 것 같더군요.

그러나 아직 객순근 교수님께서 위 발언으로 인해 정교수사회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발언의 상대방은 학생들이지 교수 또는 학교 당국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명하는 글 말미에 당신의 다음학기 강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점은 진정 학생들에게 해명하기 위해 글을 쓰셨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여론을 필요로 할 상황에 대비하신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지하 게시판에 몇 자 적으신 객교수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전: Re: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Re: 객순근 감사의 글에 대한 생각

2003/05/26(13:46) from 165.132.52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 : 00

조회: 11, 줄수: 71, 분류:

Re: 객순근 강사의 글에 대한 생각

조금 전에 저도 지하 1층 게시판에서 그 글 읽어보고 왔는데요..

목차까지 별도로 잡아가면서 열심히 썼더구만,

결국은 문제의 발언과 관계되는 내용은 끝의 두 항목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나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인간이다'

-> '강의실에서 교수에겐 발언의 자유가 있다(강의 시간의 발언을 문제삼지 말라)'

-> '자를테면 잘라 봐라. 누가 잘랐는지 한번 해보자'

2000년인가 2001년에도 객순근 강사의 발언에 대해

한 학생의 자보가 붙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없애버렸었지요..

물론 저는 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수업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2년 정도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를

학교 측에서는 어찌하여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강사 임용에는 실력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대학 강단에 서는 자로서의 책임감과 균형있는 사고도 필요합니다.

객순근 강사는 말합니다.

자신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춘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매춘에 대한 견해야 얼마든지 개인적인 가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의도고 뭐고 모두 떠나서,

문제된 발언을 들은 학생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대단한 지식인이시니,

성희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정말...

남녀평등이라는 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미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PS- 따님이나 여동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학 강단에 서있는 사람이, "돈 없으면 몸 팔아 공부해라"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진취적인(!) 생각에 박수를 보내시겠습니까?

이전: 객순근 강사의 글에 대한 생각
다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
능한가요?

2003/05/26(12:49) 1

165.132.5: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 : --::

조회: 15, 줄수: 20, 분류:

Re: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화를 내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

문제되는 발언은..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발언으로 기억하는데....

굳이 교재 준비하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그런 뜻을 갖고 말한 것이었다고 이해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지도 궁금합니다만...

설명 그런 뜻이 내포된 말이었다면 대부분 1, 2학년생인 헌법수강생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이 어떨던 간에 그저 일종의 말실수를 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감사면... 강의시간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사회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말씀 좀 가려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 문제 말고도.. 과거에도 말 때문에 참 말이 많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할 문제같습다.

舌禍를 계속 일으키신다면... 그건 어쨌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화를 내신다면.

2003/05/26(21:06) from 165.132.52

다음: 진짜 의심스럽다...

CrazyWWWBoard

곽순근 강사의 글에 대한 생각

허접한 글이니 대충 읽어주시길. 그렇지만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나름의 의견을 밝혀주시길.

곽 강사의 학문적 입장은 제가 자세히 몰라 알가알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분법적 고에 갇힌 자와 그것을 넘어선 자신 사이에 '우열'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어느 것이 더 여성문제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고 더 올바른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글을 보기전에는 그의 '여성노예' 대한 생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히 '돈이 없으면 여성은 몸을 팔고 남자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책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남녀 평등적인 생각인거 같습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누구라도 몸을 판다... 그렇지만 '여성의 성매매=몸 팔기'라는 도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녀평등적인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여성의 몸=성기'이고 '여성의 역할=남성의 삽입섹스상대'라는 사고의 도식을 읽으실 수 있으면 말입니다. 왜 여자는 막노동하라고 안 합니까?...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구분하고 틀지워 놓고 있으면서 스스로 '노예'제도를 폭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학교의 재임용 여부에 그의 생각에 대한 연세인의 판단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연세인은 사실 재임용 여부에 권한이 없습니다. 마광수 교수가 그랬고 허영 교수가 그랬다고 봅니다. 이번 일 빌미로 자를테면 잘라보라는 식으로 이 사건이 '언론 플레이'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시간에 그러한 '모욕'을 들은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동등하지 않은 법대수업을 생각할 때 그의 발언이 '문적 견해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학생노예'입장에서 불합리 합니다. 그가 재임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실력 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양'임을 강조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도 아니었고 그의 생각도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입장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강제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겠지요. '헌법학'적으로... 다만 그가 밝힌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이 정말 그의 말처럼 타당하고 진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남성 가운데에 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가 많다는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이전: 월말고사와 문제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Re: 곽순근 강사의 글에 대한 생각

2003/05/26(12:25) from 165.132.5: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작성자 : 궁금

조회: 29, 줄수: 23, 분류:

진짜 의심스럽다...

곽교수말대로 그냥 강의실에서 하는 소리다..

못할 말이 어딴나??

그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오려다가 무슨 여성차별이니 --;

여성들이여 제발 넓게 생각하라~

왜 여성차별로 받아들이는건지

이런거 가지고 따지고 넘어가면 오히려 여성운동이 비웃음꺼리밖에 안된다는 걸 모르나..

저 밑에 있었던 저글

정말 이런 생각 가진 남자들이 대부분인지...

그냥 강의실에서 하는 말이면 형법 시간에 배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말도 괜찮고, 이러저러한 아무 말이나 다 괜찮은건가...--;

어이없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퍼져있는 남녀차별적인 것들.. 신문기사에서도 다들 한번쯤은 봤을텐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격같은것...

난 그분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조차도 모른다.

근데 밑에 있는 글 읽어보니까 그 발언에 대한 사과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그른 건지 알 수 없다. 혼란스러울뿐

이전: Re: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화를 내신다면.
다음: [분실물 공지] EBS 라디오 토폴 및 이성철 저 숙어,관
용구 총정리

2003/05/26(20:32) 1

165.132.10!

CrazyWWWBoard

작성자 : 증오스럽다.

조회: 66, 줄수: 19, 분류:

어처구니 없구나

원래 꼴통 같은 폐미들의 글은(모든 폐미를 비하함은 아니다 단지 "꼴통같은 폐미"를 말한다.) 읽지 않는 편이라 순간 비법대생인줄 알았으나

당신 법과대 학생인듯 싶구나.

(실망감이 극에 달한다.)

귀찮게 이것저것 논리를 앞세워 시간 낭비 하고 싶은 생각없다.

단지 이말 한.마.디.만 하마...

" 그 정도의 이해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

이전: 객순근 강사의 글에 대한 생각
다음: Re: 진짜 어처구니 없군요.

2003/05/26(19:37) from 218.159.225

CrazyWWWBoard

Re: 진짜 어처구니 없군요.

세상 살려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그것이 과연 이해일런지 무관심일런지 모르겠군요.

예전에 어떤 분이 5.18에 대해 말하면서, 광주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일을 관용해 줄수 없는 걸까.. 하시더군요. 의례적인 사과조차도 한마디도 없이 자기 재산 빼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자에 대한 용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와 꼭 같지는 않지만, 객교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군요. 교수님이 얼마나 스스로에 해 자신감이 있던간에, 사과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럴듯 자보까지 붙여가며 당당해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지요. 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객교수님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분들 또한 충분히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교수님의 그 글에서 당당함보다는 어떤 절박함, 당혹감 비슷한 것마저 느껴지더군요.

세상을 편히 살기 위한 무조건에 가까운 이해, 과연 세상 살기에는 편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과연 그게 님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듯이 보이는 법대생으로서의 바른 태도일런지는...의문입니다.

이전: 어처구니 없구나

다음: 니 생각 물어본 적 없으니까 얼른 지워라 비법대생아, 동의하는 사람 한 명 없으니.

2003/05/26(21:12) I

211.35.172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prev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 : 법현4

조회: 30, 줄수: 52, 분류: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화를 내신다면.

정말 조선일보가 앞뒷말 다 생략하고 한 부분만 가지고 최창집 교수 별명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곽순근 교수님 글을 진지하게 읽어들 보셨습니까?
곽순근 교수님은 여성들이 스스로 오히려 남성들의 이데올로기에 스스로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그런 길들여진 시선으로 사물을 보지 말라고 한거죠.

순결이데올로기가 결국 남성들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여성들이 순결이데올로기에 스스로 더 집착을 하는..... 가까이 오현경 비디오 사건이 터졌을때 남자는 뻔뻔하게 돌아다님에도 오현경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럴때 오히려 보듬어 주어야할 여성들이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 어쩌고 하면서, 그동안 길들여진 시선으로 남성들보다 훨씬더 그녀를 비판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기득권을 더욱 두텁게 하는 그런 모순적인 것을 없애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때....즉 곽순근 교수님의 남여간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볼때....그분의 사고의 흐름으로 볼때 '여자가 몸을 파는 것이나 남자가 몸을 파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완전히 그분의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사상의 자유도 용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총련과 양심수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해를 못하고 그저 '여자가 몸을 파는'라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야 말로 한겨레 기자가 원하는 것이죠. 왜냐면 기자는 항상 자신의 기사라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진보던 보수던 자극적으로 가장 시선을 끌만한 부분을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요.

마광수 교수는 기득권을 가진 보수층들이 그분의 성적 이데올로기와 표현을 자유를 말할때라면 이번에 곽순근 교수님은 어설픈 페미니즘적인 여론으로 잡는군요.

툼아저씨의 통나무집을 아시죠?
곽순근 교수님은 착한 노예가 되지 말고 아예 백인들이 만들어준 '선 악'을 없애버리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흥분하는 분들은 백인 주인들이 만들어준 규칙과 선악의 관점에서 곽순근 교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 것이죠. 결국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접대부는 바로 잡혀가고 신촌에도 널려있는 여성 접대부는 묵인되는 사회.....'여기에서 우리는 남성의 성과 차별된 여성의 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곽순근 교수님은 이런 차별....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아예 없애고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보자고 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에 옹호를 해야할 여학우들이 그저 단편적인 자극적인 단어들만 보고 여성을 차별한다고 하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겠조....'여자와 남자를 똑같이 대접하는 것'아닌가요?

다음: Re: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화를 내신다면.

2003/05/26(20:47) from 211.45.237

CrazyWWWBoard



vote



reply



modify



delete



forward



next



write

Copyright 1998~2002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